

목포시, 혁신박람회 성공 개최 구슬땀

주민 삶의 현장서 열린 박람회로

김종식 시장, 주말에도 현장점검

오는 9월 6일 부터 8일 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서 열리는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목포시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빈 건물을 홍보 부스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로 관심을 모은 혁신박람회는 현재 건물 내부 환경정비가 끝나고, 부스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매일 현장 점검을 진행하면서 미흡한 점

을 보완해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김종식 시장이 전체 현장을 일일이 돌며 교통소통, 주차, 환경정비, 시민 참여방안 등 분야별로 준비상태를 보고 받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며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붕없는 박물관에서 열리는 텐트없는 박람회', 체육관 같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주민 삶의 공간에서 개최되는 열린 박람회'라는 혁신적인 콘셉트에 걸맞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독특한 상가나 공방, 오래된 미싱 전시장 등을 관람객에게 개방해 소소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음료?다과 봉사, 화장실 개방, 집 앞 화분 내걸기, 쓰레기 야간배출, 행사장 주변 주차 자체 등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와 열기도 뜨겁다.

목포시는 혁신정책 홍보부스 외에도 관람객을 사로잡을 여러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통합 문화예술축제인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과 연계해 '왕년에 목포축제', 극단 갯벌의 근대가요 공연 '정춘연가', 특색있는 포토존 설치 등 관람객을 위한 즐거거리

와 볼거리가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1회 전라남도혁신박람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도 더 적극적 으로 이끌어 내면서, 관람객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고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의 혁신적인 정책 소개를 주제로 하는 이번 박람회는 우수사례를 공유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혁신적인 사업 성과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지방에서부터 국가 혁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된다.



진도군, 문화 소외 아동 영화 체험 진행

진도군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아동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진도군 드림스타트는 지역 내 문화 소외계층 아동 50여명에게 최근 영화 관람 및 식사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영화 관람은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아동들에게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 소양을 기를 시간을 마련해 아동들 간에 소통의 기회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람한 영화 라이온킹은 '나

쁜 악당을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는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으로 아동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진도군의 청년창업 식당 1호 점인 돈가스 전문점을 방문,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이들이 영화 관람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무척 기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바른 인성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춘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내년 신설 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완도사무소가 2020년도에 신설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과 각종 농업직불제사업의 이행 점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 교육 등을 수행하고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1949년부터 완도군에서 운영되던 농관원 분소가 2009년 폐쇄되어 강진으로 이동하면서 지역민들이 시간·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이에 신우철 군수는 농관원 완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지난 3월부터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무소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구 윤영일 국회의원은도 농관원 완도사무소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완도사무소 신설 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구정원 책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완료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관원 사무소가 설치되면 완도사연그대로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 안전한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완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에도 제고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수도권 등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진행



영암군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영암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 직거래행사를 펼친다.

군은 현재 본격적으로 수확중인 영암의 대표 과일인 무화과를 비롯해 고구마, 멜론, 대봉감, 귤, 배, 잡곡류,

제수용품, 종합 선물세트 등을 풍성하게 준비해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에 의하면 27일과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청 '농부의 시장'에 참여해 나물류, 잡곡류, 제수용품 등을 영암장터법원에서 판매

할 계획이고,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세종시 상성장터 도담집에서 기관원들한테 판매에 나설 예정이며, 9월 4일부터 6일까지 행정안전부 별관청사에 영암농협이 참여해 달마지쌀, 골도, 무화과, 고구마, 멜론, 잡곡류, 참기름 선물세트 등 영암의 대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또한,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금정면 신유도 영농조합법인 이 서울광장에서 발효식품을 전시·판매하게 되고, 특히,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추석장사 씨름대회에 많은 귀성객과 선수단 및 응원단의 내방을 대비해 영암군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영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하반기 GAP 교육 실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박차

강진군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산물 우수관리(GAP) 하반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상반기 GAP 교육을 성황리에 마친 뒤 하반기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GAP 인증을 희망하는 많은 농가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올해 8월까지 245농가 194ha가 GAP 인증을 획득한 가운

데, 2018년 GAP 인증 목표치를 260농가 425ha로 설정하여 더 많은 농가가 GAP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GAP(농산물 우수관리)는 'Good(우수)+Agricultural(농산물)+Practices(관리)'의 약자로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본격 도입된 인증체계이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GAP 인증을 위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GAP 교육은 GAP의 개념,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인증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 받는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지방재정 확대 실적 '우수'

무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 재정 확대 실적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결과는 재원 규모 등이 유사한 동충단체별(14개 그룹)로 구분하여 추경 시기, 추경 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8개 지표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무안

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3월에 실시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역시 예년보다 앞당긴 8월에 실시하였다.

2회의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당초예산 4,852억 원 대비 1,889억 원 증가한 6,841억 원을 편성하여 동충 단체 평균보다 우수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재정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